

# 산란계의 체중측정

## —중대추 발육의 바로메타

- ……눈으로만 보는 관리에서 실제 수치를 적용시키는 보다 과학적인 관리가 전문가……○
- ……들에 의해서 주장 되어 오고 있다. 즉 육성기에 있는 닭들의 체중을 정기적으로……○
- ……자주 측정하여 이 측정치를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므로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 ……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신속히 수정하자는 것이다. ……○

### 유리브리드 제공

닭이 유전적으로 부여받은 산란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육성 기간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건강하고 균일하게 성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육성기간 중에 나타나는 병원균의 침입, 내외부 기생충의 감염, 제한급이로 인한 성장 불균일, 부적합한 사양으로 인한 성장부진, 고밀도 사육으로 인한 영양, 성성숙의 차이로 인한 조산 혹은 만산, 지방 축적, 조산에 의한 탈항, 카니발리즘 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요인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하므로서 가장 우수한 산란계를 만들려는 것이 체중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체중측정”은 부로일러 종계 육성기간 중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관리기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부로일러 종계에서 뿐만 아니라 산란용 종계, 콤머셜 산란계의 육성에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닭은 전드리지 않을 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닭에게 자주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선 이해가 가는 명언이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자주 조심스럽게 체중 측정을 하게 되면 닭들도 곧 이에 익숙해져서 크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여하간 사전에 성장과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을 생각할 때 불킴보다는 유리한 점이 더욱 크다고 평가되어

야 할 것이다. 체중 측정을 새롭게, 전 육성계군에 시작한다 하는 것은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굳이 이러한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고도 닭을 잘 길러왔는데 노력을 낭비하는 공연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종계나 산란계는 수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이고 이 닭들이 자라서 이익을 많이 내어 주느냐 못 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을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 노력(체중측정)을 들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 체중 측정 데이터의 수집

—계군별로 체중 측정 기록부를 유지한다.

체중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계사 한 모퉁이에서 딱치는대로 10~20마리를 잡아 측정된 것을 데이터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혼란만을 줄 뿐으로 근거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얼마 만큼의 닭을 얼마나 자주 측정하여야 하는가? 어떤 산란계 양계가는 6~8주령부터 시작하여 1개월에 한번씩 50수 이상의 닭을 측정하므로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부로일러 종계나 비교적 밀사를 하고 있는 산란 종계라면 매 2주 간격으로, 계군의 5%(최소 100수)를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1) 평사에 수용된 닭의 체중

평사 계사를 4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에서 25수씩 측정한다. 체중을 측정하려는 구획에 가서 한줌의 밀이나 걸보리를 모이통에 뿌려주면 닭들이 곡류를 먹기 위하여 몰려 들 것이다. 이때 미리 준비한 닭 우리에다 25수를 잡아 넣은 다음 한마리씩 꺼내어 개체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부에 적는다.

이 방법 이외에도 닭을 계사의 각 코너에 몰아넣는 장치를 하여 측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을 하는데에는 2~3경으로 충분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체중 측정 계획을 시작할 때 각 구획에서 15마리 정도의 닭을 잡아 등에 퍼런 잉크칠을 해 놓고 측정할 때마다 가끔씩 이들 샘플 닭들을 잡아 측정하는 것이다. 꼭 이들 선택된 닭들만을 측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측정치에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은 부로일러 종계에서 특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로일러 종계에 있어, 일일 제한급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을 때는 사료를 주기전에 측정하고 격일 급이를 할 때에는 배합 사료 안 주는 날에 측정한다.

체중측정은 매회 같은 시간에 행한다.

2) 케이지에 수용된 산란용 대추의 측정

케이지에 수용된 닭의 체중을 측정하는 일은

보다 용이하다. 그러나 케이지에 수용된 닭은 환경이 나쁘더라도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측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찰을 요한다.

한 줄의 케이지 중에서 적어도 3부분(좌단, 중간, 우단)의 닭들을 측정해야 한다. 데이터를 기록할 때에도 케이지의 각종 각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위치별로 구분하여 그 체중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여 각 구획의 환경상태, 사양관리 상태를 개선하는데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

제언하지만, 체중 측정의 주목적은 닭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정기적으로 자주 체크하여 생길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관리방법을 신속히 수정하여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체중 측정 기록을 검토함에 있어서, 나타난 평균치만을 가지고 측정 계군의 체중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낮은 것들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균일한 것인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질병의 징후가 있다든지, 지방 축적이 심하다든지, 성숙이 너무 빠르다든지 하는 점은 측정 소견란에 적어 관리상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체 중 측 정 표

계군명 _____	주령 _____	일령 _____	호계사 _____		
측정일시 _____	197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측정자 _____
	A 구 획	B 구 획	C 구 획	D 구 획	E 구 획
1					
2					
3					
⋮					
⋮					
20					
계					
평균					

총 평균 체중 \_\_\_\_\_  
 가장 무거운 체중 15%의 평균치 \_\_\_\_\_ gm  
 가장 가벼운 체중 15%의 평균치 \_\_\_\_\_ gm  
 무거운 체중과 가벼운 체중의 차이 \_\_\_\_\_ gm  
 측정 소견 \_\_\_\_\_